

6. 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조선인민군창건 81돐에 즈음한 조선인민군 레식 엄숙히 거행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조선로동당과 군대, 국가의 책임일군들과 함께 참석하시였다

조선인민군창건 81돐에 즈음한 조선인민군 레식이 25일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엄숙히 거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광장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순간 참가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영광의 환호를 울리는 인민군장병들과 군중들에게 손을 흔들어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며 영웅적 조선인민군창건 81돐을 뜻깊게 경축하는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조선인민군군악단이 《발걸음》, 《조선인민군가》를 주악하며 전투적이며 기백에 넘친 군악례식을 펼치였다.

조선인민군 레식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시작되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와 김정일대원수님께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충정을 맹세하는 첫 연설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최룡해 조선인민군 차수가 하였다.

연설자는 조선인민군이 걸어온 80여성상의 력사는 백두산철세위인들의 품속에서 주체혁명위업완성의 주력군으로 끊임없이 장성강화되어온 영광의 력사이며 적들의 악랄한 도전과 전쟁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든든히 보위해온 승리와 위훈의 력사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백두밀림에서 우리 혁명무력을 창건하시고 한세대에 가장 포악한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시여 세계적인 군사적기적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독창적인 자위적군사로서와 《일당백》 구호를 제시하시여 나라의 자주권수호와 민족민단의 번영을 위한 강력한 군사적담보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건군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신 아버지장군님께서서는 선군의 기치높이 인민군대를 최정예 전투부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전대미문의 사회주의수호전을 련전련승으로 이끄시였으며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우주강국, 핵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는 거대한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다.

혁명활동의 거룩한 첫 자욱을 인민군대에 새기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군건설의 총적임무로 제시하시고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령도로 우리 혁명무력을 그 어떤 제국주의강적도 타승할수 있는 백두산혁명강군으로, 핵무기를 틀어쥔 최강의 군대로 역세게 키우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에서 수령영생법전과 핵 및 우주강국의 법적담보를 마련해주시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제시하신것은 우리 나라를 태양의 조국으로 영원히 빛을 뿌리게 하며 미제의 끊임없는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고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력사적인 사변으로 된다.

연설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대



을 전략로켓트군 화력타격계획을 최종검토, 비준해주시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우리의 대륙간탄도미사일들마다에는 날강도 미제의 소굴들이 첫째가는 타격대상으로 입력되어 있으며 지금 전략로켓트군장병들의 손은 발사단추우에 놓여있다.

우리의 위업은 정의의 위업이며 핵무력은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핵무력이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감히 선불질을 한다면 미제는 진짜 핵전쟁맛, 진짜불벼락맛이 어떤 것인지 몸서리치도록 느끼게 될 것이며 미제의 앞잡이들도 무서운 핵참화의 된맛을 톡톡히 보게 될것이다.

레식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이어 조선인민군창건 81돐경축 분렬행진이 진행되였다.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 노래주악이 울려 퍼지는 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태양상이 군기종대의 호위를 받으며 광장에 입장하였다.

군기들을 대오앞에 휘날리며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과 로동적위군 대원들이 장중한 취주악에 맞추어 위풍당당하게 행진해갔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주석단앞을 보무당당히 행진하는 대오들에 답례를 보내시였다.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천경만경으로 뭉쳐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광명한 미래,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해 전진하는 백두산대국의 기상이런듯 우리의 미더운 항공기들이 세찬 동음을 울리며 금수산 태양궁전상공에서 시위비행을 하였다.

레식은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노래주악과 합창으로 끝났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또다시 군중이 터쳐올리는 우렁찬 《만세!》의 함성으로 하여 광장은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격정과 환희에 휩싸여있는 군중에게 손을 저어주시며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본사기자

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맨 앞장에서 총직하게 받들어 무적의 총대로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불타는 결의를 피력하였다.

이어 진행된 결의연설에서 김명식 해군사령관은 목소 어필정에 오르시여 과도세찬 항해길도 해병들과 함께 헤치시며 우리 식의 해군전법도 밝혀주시고 해군무력의 현대화를 위하여 끝없는 로고와 심혈을 바쳐오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해군은 무적의 함대로 더욱 강화발전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금 미제침략자들은 초대형항공모함들과 핵동력잠수함파위로 우리를 놀래워 보려고 하지만 최첨단타격수단들로 무장

된 우리 혁명무력앞에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주문진앞바다에 수장된 미제의 중순양함 《볼티모》호의 신세를 면치 못할것이다.

우리 영웅적조선인민군 해군이 있는 한 조국의 바다는 영원한 백두산대국의 바다, 태양민족의 바다로 설레이것이다.

리병철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체취와 숨결이 뜨겁게 어려있는 우리 항공군을 나의 비행대라고 하시면서 바람세찬 비행훈련장에 나오시여 백승의 비행전법도 가르쳐주시며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은 무적의 힘과 기적을 날게 하는 근본원천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금 항공 및 반항공군 장병들은 우리

의 날개우엔 태양이 있고 우리의 날개아래엔 평양이 있다는 신념의 노래를 부르며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와 금수산태양궁전을 결사보위할 억척불변의 신념을 만장약하고 적들의 운명을 종지부를 찍게 될 최후공격 명령을 기다리고있다.

우리 일당백비행대는 출격명령만 내리면 돌아올 연유대신 핵폭탄들을 만장재하고 적들의 아성에 비호같이 날아들어 모조리 초토화해버리겠다.

김락겸 전략로켓트군사령관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한생을 바쳐 마련해주신 강위력한 핵미사일들을 부대들에 실전배비하도록 하시고 지난 3월에는 원수들의 머리우에 핵보복의 불소나기를 퍼부



